

14. 19세기 말 건입포(健入浦) 만행 사건²⁰⁾

1백 년 전 일본(日本)의 어업(漁業) 침략을 돌아본다.

19세기 말엽부터 제주도(濟州島) 연안 일대에서 일어났던 일본어선(日本漁船)들의 폭력사태는 일제(日帝)의 침략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대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1883년(고종 20) 6월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이 조인되고 이에 따른 일본인어채범죄조규(日本人漁採犯罪條規)가 조인되었다. 전문 6조로 된 이 규정은 조선(朝鮮) 국법을 어긴 일본(日本) 어로범법자에 대한 처벌규정이었으나 주로 일본(日本) 범법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20) 『한라일보』(삼각봉), 1993. 03. 01 (월), 논설위원.

1889년(고종 26) 10월에는 마침내 전문 41관(款)에 걸친 조일통어장정(朝日通漁章程)이 체결되었다. 그 내용은 해안 3리(里) 이내에서는 어업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만약 3리(里) 이내의 해역에서 어업을 하려고 할 때는 영사관(領事館)을 거쳐 지방관서장(地方官署長)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위반하였을 때는 포획한 어물은 몰수가 가능하였으나 범법자에 대한 처벌은 일본영사관(日本領事館)과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기회로 일본(日本) 어선들이 제주도 근해에 집단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잠수기선(潛水器船)을 보유하고 근대적 잠수어업을 하였다. 이를 본 제주도 어민들은 생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으며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다. 제주도의 반대가 거세지자 정부도 일본공사(日本公使)와 협의, 그 시행을 여러 차례 연기 유보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유보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부들의 침범은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불법어로에 그치지 않고 무단 상륙하여 가축 식량들을 약탈하거나 부녀자들을 폭행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도민들과의 충돌도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불법어로 저지하려다 임순백(任順伯)씨 피살되

1891년(고종 28) 5월 제주(濟州)시 건입포(健入浦) 앞바다에서 발생하였던 건입포(健入浦) 청년들에 대한 일본(日本) 무장 어부들의 만행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총검으로 무장한 일본(日本) 어선 수십 척이 건입포(健入浦) 앞바다에 몰려 와 공공연히 불법어로를

감행하였다. 이를 본 임순백(任順伯) 등 건입포(健入浦) 청년들이 항상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하여 배를 타고 나가 불법어로를 저지시키고 돌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일본 어부들은 총검의 힘을 믿고 도리어 저지하는 청년들에게 정면으로 도전 쌍방 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 투쟁에서 앞장 서 강력히 항의하던 임순백(任順伯) 청년은 일(日) 어부들이 휘두른 칼에 찔려 피살되었으며 16명의 청년들도 부상을 입었다. 불법어로를 저지 추방할 목적으로 나갔던 건입(健入) 청년들은 일본 어부를 쫓아내기 위한 돌팔매용 자갈들만 싣고 갔을 뿐 무장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총검으로 완전무장한 그들의 호전적 만행으로 피비린내 나는 살상을 당한 것이었다.

일본의 어업 침략으로 입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상처요, 비극적 사건이었다.

무단상륙 · 노략질 속출 ... 외교분쟁 야기

일본(日本) 어부들의 만행은 비단 이 사건으로 그치지 않았다. 1887년 모슬포(擘瑟浦)에 일(日)어부 40여 명이 무단상륙, 이만송(李晩松) 등 4명을 살상한 사건을 비롯하여 화북(禾北) 조천(朝天) 함덕(咸德) 북촌(北村) 동북(東福) 성산포(城山浦) 두모포(頭毛浦) 등 여러 곳에서 발생하였다.

그들은 항상 무장하여 집단 상륙하고 민가에 침입, 총검으로 위협, 닭 돼지 등 가축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겁간했으며 이를 항의하는 자가 있으면 무자비하게 살상하는 등 해적행위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이 무렵 제주도에 있어서의 일본 어부들의 어업침범과 폭력사태는

피해보상요구 등 꾸준히 한·일(韓·日) 양국 간의 외교 분쟁으로 대두되었으며, 이를 위한 조사단이 여러 차례 제주도를 답사하기도 하였다.

1891년 5월, 24세의 젊은 나이로 건입포(健入浦)에 침범한 일본(日本) 무장 어부들과 정면으로 대항, 과감히 투쟁하다 죽은 임순백(任順伯)의 후손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사가(史家)들의 오랜 추적 대상이었다. 그것이 지난 번 금산(禁山) 유적복원운동과 관련하여 현장을 조사하던 본사 취재팀에 의하여 밝혀진 것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다. 지금 생존해 있는 임순백(任順伯)의 직계 후손으로는 장손이 일본 동경(東京)에 거주하고 있는 임경찬(任景贊)씨(83)로 밝혀졌으며 증손인 재준(在準)씨(60)가 지금 제주(濟州)시 건입(健入)동 1337번지에 거주하고 있다.